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하반기 운영대의원회 개최

김대섭 기자 | 승인 2026.11.12 15:54

농업용수 공급·농업기반시설 관리 방안 논의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의 2026년 하반기운영 대의원회 회의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경주지사

[시사포커스 / 울산 경주 = 김대섭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12일 지사 회의실에서 운영대의원과 관계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운영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지사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기철 경주지사장은 "운영대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업무에 반영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sisafocus08@sisafocus.co.kr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